특 집

새만금과 전북발전

최 수
전라북도 환경보건국장

금년 봄 한중일 동북아는 때 아닌 역사와 영토문제로 시끄러웠다. 한일간도 일본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자기 현에 속한다는 조례제정을 기화로 영토전쟁이 뜨거웠다.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독도는 사람하나 살 수 없는 그냥 바위덩어리에 불과한 섬이다. 주변 해역도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배타수역이 아닌 일본과 같이 어업하기로 한 공동어업구역이다. 어느 나라에 속하든 경제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영토분쟁은 양국간 불편한 관계로 이어져 양국민간의 감정이 악화될 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 각각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는 등 많은 나라들이 국경의 장벽을 없애는 작업들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설치나 FTA등의 체결 등이 그 예이다. 한국과 일본간에도 과거와 같은 적대적 관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유럽연합과 같은 나라간의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FTA 등은 충분히 고려해봄직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필요한 양국민간의 감정의 골이 없어야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 활발히 양국가간, 양국민간의 교류를 확대하여 서로 신뢰를 쌓고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양국간의 불필요한 마찰로 인하여 최근 조사에 의하면 노년층보다 젊은층에서 오히려 반일감정이 더 크다고 한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도문제와 같은 분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그 작은 독도를 어느 나라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영토란 경제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새만금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땅은 독도땅의 2,155배의 면적이다. 그것도 독도는 거의 쓸모없는 땅인데 반하여, 새만금땅은 어느 한 평 못 쓸 땅하나 없다. 또 북한과 가장 첨예하게 다투고 있고 얼마 전에는 연평해전까지도 치른 연평도의 55배 크기다. 그렇다고 새만금땅이 독도나 연평도보다 그 면적에 비례한 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섬 중에서 가장 큰 거제도보다 더 큰 곳이 새만금지역이다.

서울 인근의 강화도는 고려 정부가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 39년 동안이나 버틴 곳이다. 만약 강화도가 없었다면 고려정부는 어떻게 몽고군과 그토록 오랫동안 대치할 수 있었을 것인지 아마 우리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지도 모른다. 새만금땅은 그 강화도 땅보다 1/3이 더 크다.

모두가 다 잘 아는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도시국가를 빼고는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이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뜻은 인구 일인당의 국토면적이 가장 좁다는 뜻이다. 이런 좁은 국가에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는 이웃나라를 쳐들어가 빼앗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를 매우는 것일 것이다. 영토를 넓히기 위하여 주변나라를 쳐들어간다면 아마 소도 웃을 것이다. 그렇다면 영토를 넓히는 유일한 길은 바다를 메우는 것일 것이다. 다행히 메울 갯벌이 있고, 그것을 메운다 하여 시비를 걸어오는 나라도 없다. 그 영토를 넓히는 일이 바로 새만금사업인 것이다.

전라북도는 우리나라의 현대화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이제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곳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농경사회였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었다. 토지 즉 농지는 바로 부 그 자체였기 때

문이다. 지금도 전주는 맛의 고장이라 한다. 단 돈 몇 천원이면 갖은 산해진미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이다. 이는 옛날 그만큼 이 지역이 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그 곳이 현대화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함으로써 인구는 점점 줄어 300만에서 이제 200만도 저 멀리서 보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지리적 여건 상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 등 서방국가와 통상 등을 통하여 나라를 발전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전라도가 소외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하고 위안도 하지만, 정책추진자들의 의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상황에서 새만금사업이라는 커다란 국책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추진되고 있으니 전라북도민들이 남다른 애착을 가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 국책사업에 대하여 자꾸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민들은 지금 심히 언짢아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새만금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라북도민들은 누구도 그들 말을 믿지 않는다. 그들의 주장처럼 정말 새만금사업이 환경적 재앙을 가져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라북도민이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전라북도인들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믿지 않을까. 그들이 너무 어리석어서인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적 피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없어진 말이지만 얼마 전만하여도 전라도 사람들을 갯땅쇠라 하였다. 갯땅 즉 갯벌을 막아 농사를 지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전라북도도민들은 지난 수 천년동안 이 땅에 살면서 갯벌이 생기면 그걸 막아 농토로 만들고 또 생기면 또 막아 오늘의 그 넓은 호남평야를 일군 주역들이다. 거기서 나온 식량으로 우리국민의 목숨을 부지하여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을 지금처럼 완공하여도 결코 어느 종류의 재앙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그들은 피부로 알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현재의 계획으로는 농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농지만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다. 우선 농지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실제 내부개발 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리 도민들은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의 장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땅값이 치솟았거나 치솟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처럼 장기간의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이 새로 생긴다면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가뜩이나 지가가 높아 외국으로 도피하는 기업들이 많은 실정에서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땅이 새로 공급된다면 그것 자체가 국가발전에 큰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가적 토지수요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당장은 상당면적은 당초의 계획대로 농지로 써야 할 것이다. 새만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초에 농지로 사용키로 했으니 농지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시비하겠지만, 이는 억지 주장으로 새로운 땅이 생기면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국가에 이익이 되는 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세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토요일은 많은 직장이 일을 하지 않는다. 공무원들도 금년 7월부터는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유의 시간을 이용하여 자연을 찾아 여가를 즐길 것이다. 새만금사업이 완공되면 33 km의 세계 최장의 방조제, 광활한 바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지평선, 그 앞에 펼쳐진 황금벌판, 선유도의 빼어난 풍광과 해수욕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 호수를 둘러싼 끝없는 갈대밭, 헤아릴 수 없는 철새들, 여기다 변산 국립공원, 우리나라 어디에다 내놓아도 흠잡을 수 없는 관광지가 될 것이다.

지금 전라북도민들은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를 놓고 갑론을박 행복한 꿈에 젖어있다. 어떻게 이용하든 전북 지역이 발전하는 데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 동안의 침체는 새만금사업으로 말끔히 해소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환경단체들의 중단요구가 다른 뜻이 있다면 몰라도 진정 환경문제가 걱정이 되어서라면 우리 도민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환경일랑은 걱정 하지 말라고. 우리가 책임진다고,